

2023

플라스틱 배출기업
조사보고서



우리는
일회용을
마신다

We Drink Disposable.



GREENPEACE

CONTENTS

Part 1 서론

01 조사 배경	003
02 조사 방법	006

Part 2 본론

01 전체 일회용 플라스틱 발생 분석	008
- 전체 일회용 플라스틱의 제품군별 소비량	008
- 전체 일회용 플라스틱 발생량 중 식품제조사의 비율	009
- 전체 일회용 플라스틱에서 발생한 플라스틱의 재질 분류	011
02 식품 포장재에서 일회용 플라스틱 발생 분석	012
- 식품 포장재에서 일회용 플라스틱의 제품군별 발생량	012
- 식품 포장재 중 생수 및 음료류 상위 5개 제조사 분석	013
- 식품 포장재 중 생수 및 음료류 상위 5개 제조사의 플라스틱 사용 실태 및 감축 계획	015

Part 3 결론 및 제언	018
----------------	-----

부록

01 참가자 인터뷰	021
02 참가자 리스트	022
03 플록조사 참가자 모집 협력 기관	025
04 후원자 리스트	026
05 참고자료	027

Part 1

서론

01 조사 배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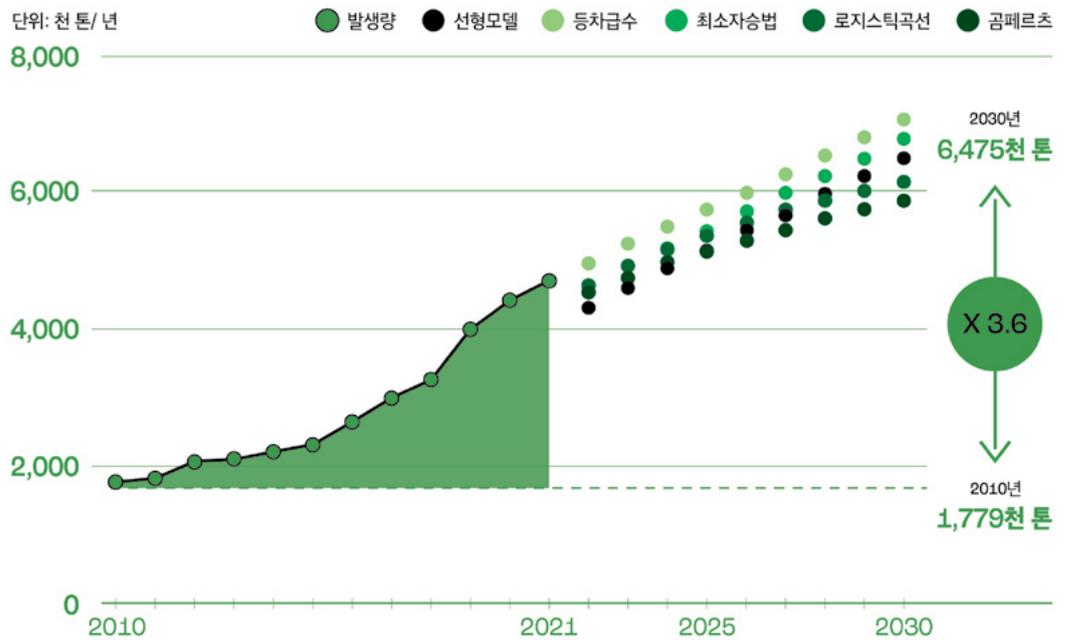
02 조사 방법

01 조사 배경

플라스틱에 대한 정보는 빠르게 변화하고 매일 더 다양해지고 있다. 이 방대한 정보 대부분은 하나로 귀결된다. 플라스틱이 우리의 건강을 위협하고, 생태계 파괴와 기후위기를 가속한다는 것이다. 또한, 지금처럼 플라스틱을 사용한다면 우리의 미래는 플라스틱으로 뒤덮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린피스와 충남대학교 연구팀의 최근 연구에 따르면 지금처럼 일회용 플라스틱을 사용할 경우 2030년 국내 플라스틱 생활계 폐기물은 2010년 대비 약 3.6배로 증가한다(그림1).¹ 또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2060년 전 세계 플라스틱 폐기량이 2019년 대비 약 3배 증가할 것으로 예측한 바 있다.²

그림1
생활계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량 예측 (2022-2030)

출처 | 그린피스 플라스틱
대한민국 2.0 - 코로나19 시대,
플라스틱 소비의 늪에 빠지다



이런 연구결과들은 우리가 플라스틱 오염의 심각함을 깨닫고 빠른 변화를 도모해야 함을 나타낸다. 이미 플라스틱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가 가장 빠르게 이 오염에서 벗어나고 플라스틱 시대를 끝내기 위해서는 플라스틱 생산절감과 일회용 플라스틱의 점진적 퇴출이 필요하다.

일회용 플라스틱은 전 세계 산업별 플라스틱 사용 비율의 약 36%를 차지한다.³ 유럽에서의 일회용 플라스틱 비율은 약 40%이고,⁴ 국내에서는 약 46.5%를 차지한다.⁵ 대부분 불필요하고 대체 가능한 일회용 플라스틱의 단계적 감축을 통한 퇴출은 가장 먼저 시작되어야 한다.

변화를 위한 시민의 움직임은 활발하지만, 정작 일회용 플라스틱을 칭칭 감아 제품을 판매하는 기업에서의 변화는 여전히 미비하다. 기업은 경량화, 재활용, 바이오 플라스틱과 같은 미봉책으로 소비자들의 눈을 속이고 있다.

경량화는 플라스틱의 무게나 라벨을 없애므로써 화석연료 기반인 신재 플라스틱의 사용을 줄인다는 것인데, 정작 기업의 총 플라스틱 사용량은 경량화로 줄인 플라스틱이 무색할 정도로 점점 많아지고 있다.^{6,7}

재활용의 한계는 이미 충분히 지적되어왔다. 전 세계 9% 미만인 재활용률과 재활용을 거듭할수록 독성물질 배출이 더해진다는 연구 결과는⁸ 재활용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

바이오 플라스틱은 대부분 신재 플라스틱과 함께 사용되며, 플라스틱을 대체하기에 비용이 많이 들고 또 다른 물질의 폐기물이 생긴다는 문제를 가지고 있다.⁹ 더불어 바다에 녹고 땅에 녹는 플라스틱의 경우 특정한 조건이 필요하며 국내 폐기물 처리 방법을 고려했을 때 궁극적이고 효과적인 대안이 되지 않는다.¹⁰ 이에 더해 플라스틱을 대체할 또 다른 폐기물을 창조해 계속 쓰는 것은 지속 가능하고 온전한 대안이 될 수 없다.

기업의 플라스틱 오염 해결에 관한 기업들의 무책임한 행보에도 정부는 이를 강력히 규제하지 않고 있다. 특히 최근 일회용품 관련 규제만 보아도 수년간 이어진 번복과 완화, 그리고 일회용 컵 보증금제의 포기 등 정부 정책은 힘없이 후퇴하고 있다. 이런 정부의 태도는 기업이 오염자 부담 원칙에 따라 마땅히 저야 할 책임을 지지 않는 결과를 낳고 있다.

이처럼 기업은 이익창출을 위해 계속 눈속임을 하고, 정부는 이런 기업을 제재할 의지가 없다. 이 때문에 실질적으로 플라스틱 오염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플록조사는
2020년 그린피스 집콕조사의
연장선으로 '플록'은 '플라스틱
콕 집어내'의 줄임말을 뜻함

이런 이유로 그린피스 서울사무소는 시민과 함께 어떠한 기업이 가장 많은 일회용 플라스틱을 생산하고 판매하는지 파악하고 기업과 정부에 변화를 요구하기 위한 기초자료 확보를 위해 플라스틱 사용량을 조사하는 플록조사*를 2020년부터 이어오고 있다.

플라스틱 배출량 상위 기업을 가늠하는 조사는 글로벌 차원에서도 이루어졌다. 전 세계 2,300여 개의 환경단체들이 연대하여 운영하는 플라스틱추방연대(Break Free From Plastic, 이하 BFFP)에서는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 동안 일회용 플라스틱 배출에 대한 글로벌 기업의 책임을 묻는 Brand Audit 조사를 진행했다. 해당 조사에서 코카콜라는 5년 연속으로 1위 오염유발자로 지목됐으며, 네슬레, 펩시코, 유니레버가 꾸준히 상위권에 올랐다(그림2). BFFP는 5년간의 조사를 통해 플라스틱 오염에 이들 기업의 책임이 막대하다는 점을 폭로했고, 재활용보다 재사용이 궁극적 해결책이라는 것에 이들 기업이 동의하게 하는 결과를 얻었다. 가장 주목할 결과는 코카콜라가 2030년까지 전 세계 판매되는 음료의 최소 25%를 재사용 가능한 병(유리, 플라스틱)으로 교체하겠다고 발표한 것과 펩시코가 리필용 탄산음료인 소다스트림(SodaStream)의 투자를 증대한 것이다.¹¹

그린피스는 국내에서도 BFFP의 조사 결과처럼 기업과 정부의 변화를 이끌어내고자 본 조사를 4년 동안 진행해왔으며, 조사를 바탕으로 기업과 정부에 궁극적 해결책의 채택과 투명한 정보공개를 요구하고 있다.

그림2
BFFP의 5년간 조사 결과
(2018-2022)

출처 : BFFP, The Brand Audit
Report 2018-2022

Year	Brand Audits	Volunteers	Countries and Territories	Total Count	Top 3 Polluters
2018	240	8,802	43	255,429	① <i>Coca-Cola</i> ② PEPSICO ③ NESTLÉ
2019	721	157,415	52	763,604	① <i>Coca-Cola</i> ② NESTLÉ ③ PEPSICO
2020	575	14,734	55	346,494	① <i>Coca-Cola</i> ② PEPSICO ③ NESTLÉ
2021	440	11,184	45	330,493	① <i>Coca-Cola</i> ② PEPSICO ③ <i>Unilever</i>
2022	397	14,760	44	429,994	① <i>Coca-Cola</i> ② PEPSICO ③ NESTLÉ
Total	2,373	206,895	87	2,125,414	① <i>Coca-Cola</i> ② PEPSICO ③ NESTLÉ



02 조사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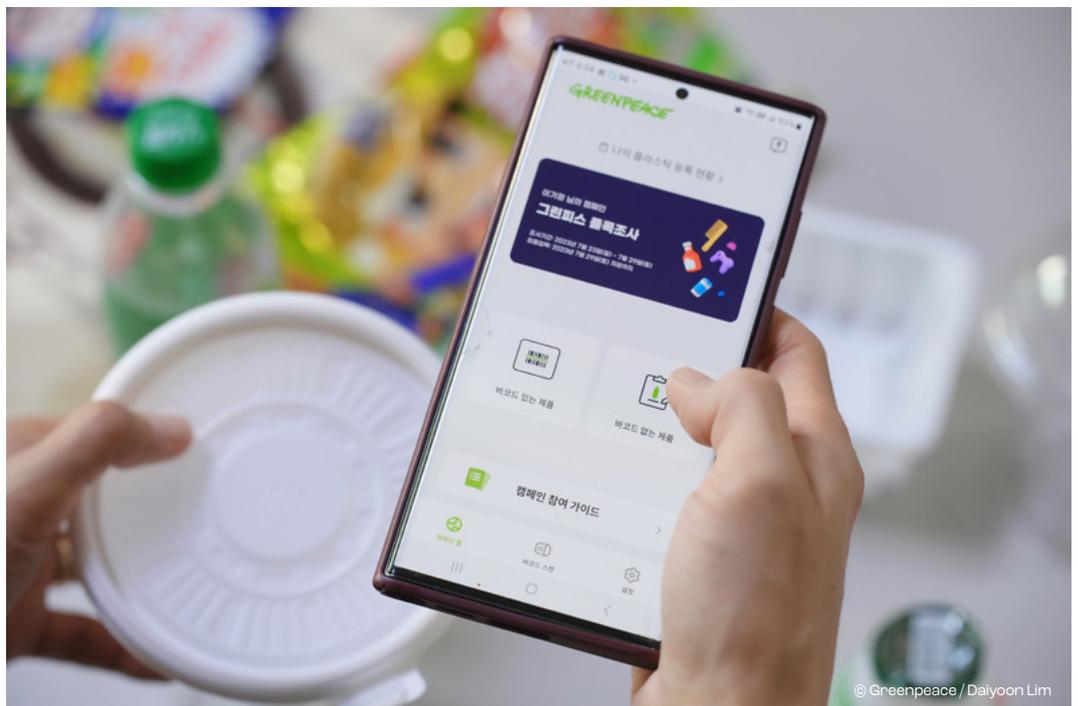
그린피스 서울사무소는 2022년부터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해 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일회용 플라스틱 배출 기업 조사 애플리케이션(플록조사-그린피스 서울사무소 플라스틱 조사 앱)은 대한상공회의소 유통물류진흥원이 제공하고 있는 제품의 바코드 정보를 활용하여 제품을 식별한다.

바코드가 존재하지 않거나 식별되지 않은 제품에 대해서는 참가자가 제조사, 제품군, 제품명 등 정보에 대해 수기 입력을 통해 기록하였다. 또한 각 참가자가 입력한 개별 상품의 플라스틱 성분을 파악하기 위해 그린피스 서울사무소에서 자체 후속 조사를 진행했다.

이 조사의 목적은 실제 소비 단계에서 어떤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이 얼마나 사용되고 있으며, 어떤 기업들이 플라스틱 배출 감축을 위해 더 노력해야 하는지를 밝히는 것이다. 본 조사는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쉽게 접하는 플라스틱 포장재의 종류 및 사용 현황을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입력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일회용 플라스틱 소비행태가 편향적으로 반영되는 것을 막기 위해, 전국 다양한 연령과 가구원 수를 기준으로 참가자를 선발하였다.

조사 기간은 2023년 7월 23일부터 2023년 7월 29일까지 총 7일간이었으며, 참가자가 사용한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의 정보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입력하는 방식으로 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오기재 및 불성실한 응답 등을 제외하고 총 2,084명의 데이터를 확보해 분석에 사용하였다. 주요 응답 내용은 참가자가 사용한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의 제조사, 제품군, 플라스틱 종류, 수량 등을 포함한다.

플록조사 애플리케이션으로
일회용 쓰레기를 입력하는
모습



Part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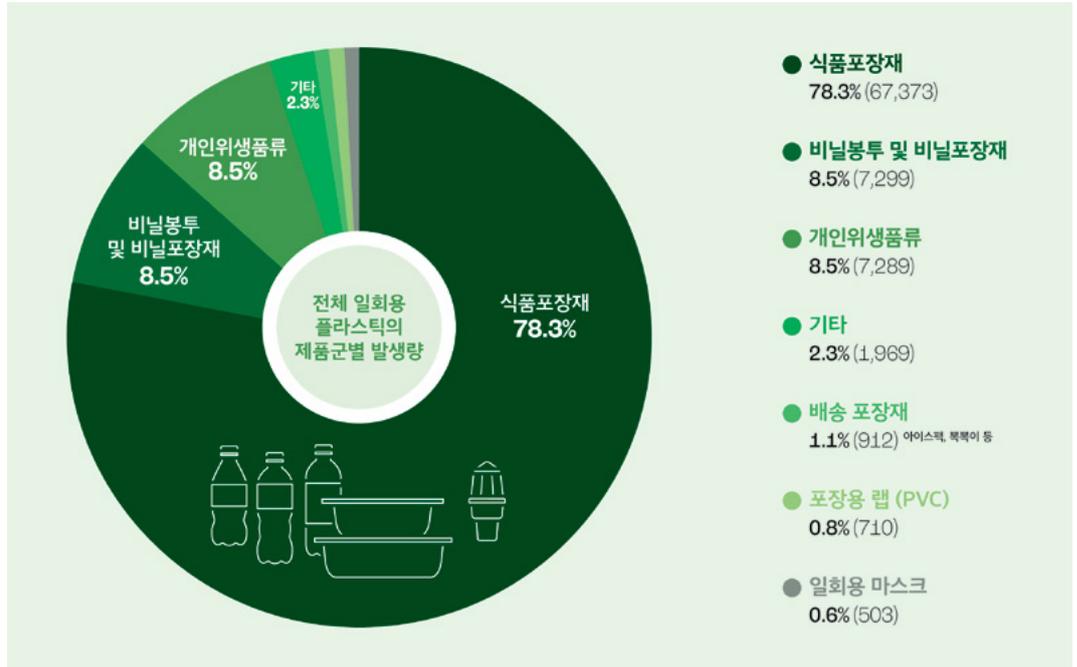
본론

01 전체 일회용 플라스틱 발생 분석

02 식품 포장재에서 일회용 플라스틱 발생 분석

01 전체 일회용 플라스틱 발생 분석

그림3
전체 일회용 플라스틱의
제품군별 발생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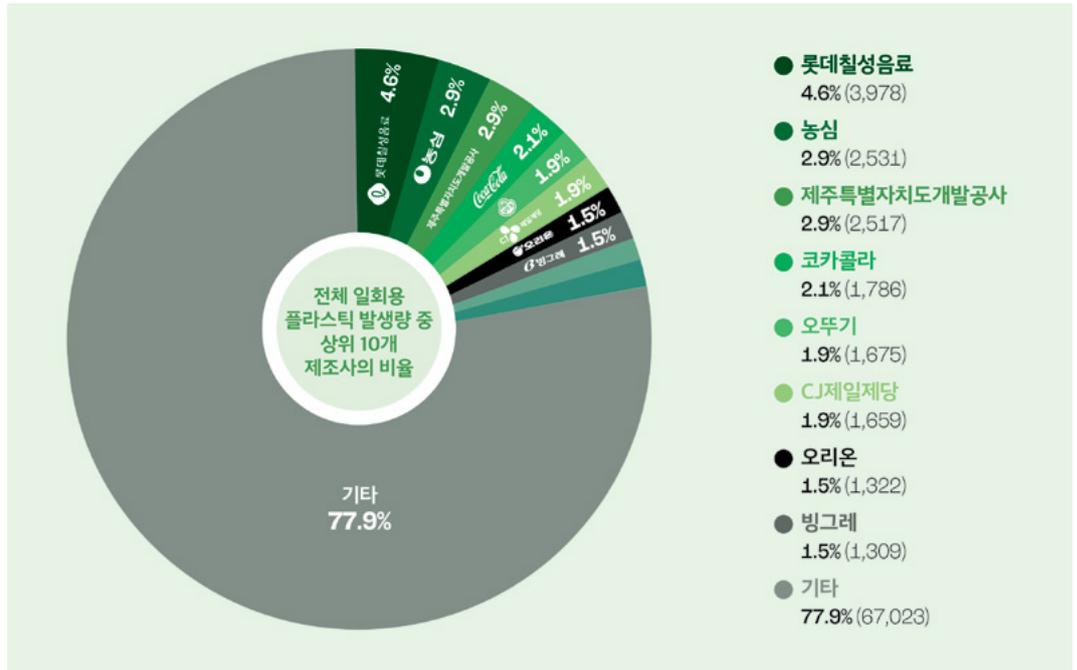
일주일의 조사 참여기간 동안 2,084명이 응답한 전체 일회용 플라스틱은 총 86,055개로 나타났으며, 1인당 일주일간 약 41.3개의 일회용 플라스틱을 사용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식품 포장재로 쓰인 일회용 플라스틱은 전체 플라스틱 배출량 중 78.3%로 집계되었다. 일회용 플라스틱 배출량 중 식품 포장재가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지난 4년간의 조사 결과를 비교해보았을 때 전체 일회용 플라스틱 배출량 중 식품 포장재가 차지하는 비율은 평균 75% 이상을(2020년 71.8%, 2021년 78.1%, 2022년 73.2%, 2023년 78.3%) 차지했다. 일회용 플라스틱 쓰레기 중 식품 포장재의 비율이 매년 70%를 상회하는 것으로 보아, 식품 제조사가 플라스틱 오염 해결을 위한 변화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플라스틱 배출량의 세부 분류를 살펴보면 생수를 포함한 음료류 포장재가 전체 플라스틱 배출량의 37.6%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다음으로는 과자나 사탕 등을 포장하는 간식류 포장재가 15.3%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뒤이어 즉석밥, 밀키트 등 가정간편식류는 14.3%로 1, 2, 3위 모두 작년과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4년간의 조사 결과를 보더라도 일회용 플라스틱 중 음료류가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다(음료류가 차지하는 비중: 2020년 25%, 2021년 32.5%, 2022년 51.3%, 2023년 37.6%).

전체 일회용 플라스틱 발생량 중 식품제조사의 비율

그림4
전체 일회용 플라스틱
발생량 중 상위 10개
제조사의 비율



이번 조사에서 집계된 제조사는 총 4,524개로 나타났다. 모든 제조사 중 상위 10개 식품 제조사가 발생시키는 일회용 플라스틱은 배출량 기준 총 8만 6,055개 가운데 1만 9,032개였다. 이는 그림4와 같이 전체 제조사의 0.22%에 불과한 10곳의 제조사가 전체 플라스틱의 약 22.1%에 달하는 일회용 플라스틱을 생산 및 유통한 것이다.

아래 그림5를 보면 식품제조사 중에서도 1위를 차지한 롯데칠성의 경우 2, 3위인 농심과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에 비해 36% 이상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2022년 조사에서도 1위를 차지했던 롯데칠성은 2위 기업보다 36% 이상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표1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플록 조사를 진행해온 4년 동안 상위 10개 기업의 구성은 큰 변화 없이 유지되어왔다. 이는 이들 기업이 플라스틱의 대량 소비와 일회용 문화를 유지하고 확산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으며, 시민의 꾸준한 변화의 요구에도 기업은 플라스틱 오염을 해결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하지 않았음을 증명한다. 특히 롯데칠성의 경우 지난 3년간의 조사에서 꾸준히 1위를 차지하며 1등 오염유발자 역할을 하고 있으며, 2위 3위 기업에 비해서도 월등하게 높은 배출량을 보여 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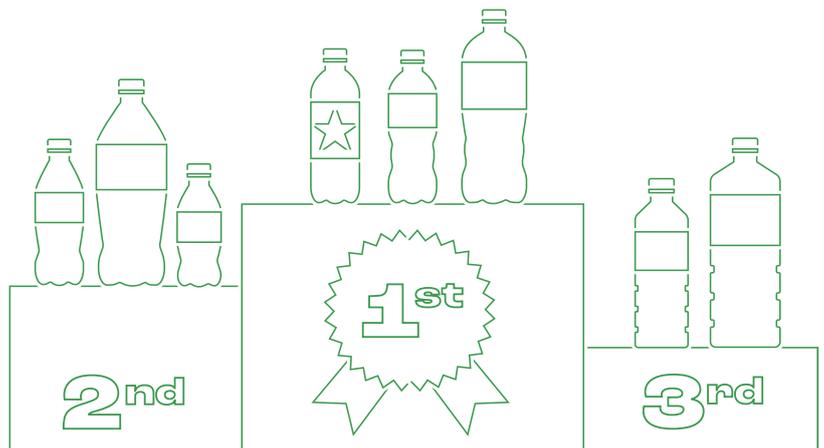


그림5
전체 일회용
플라스틱 발생량 중
상위 10개 제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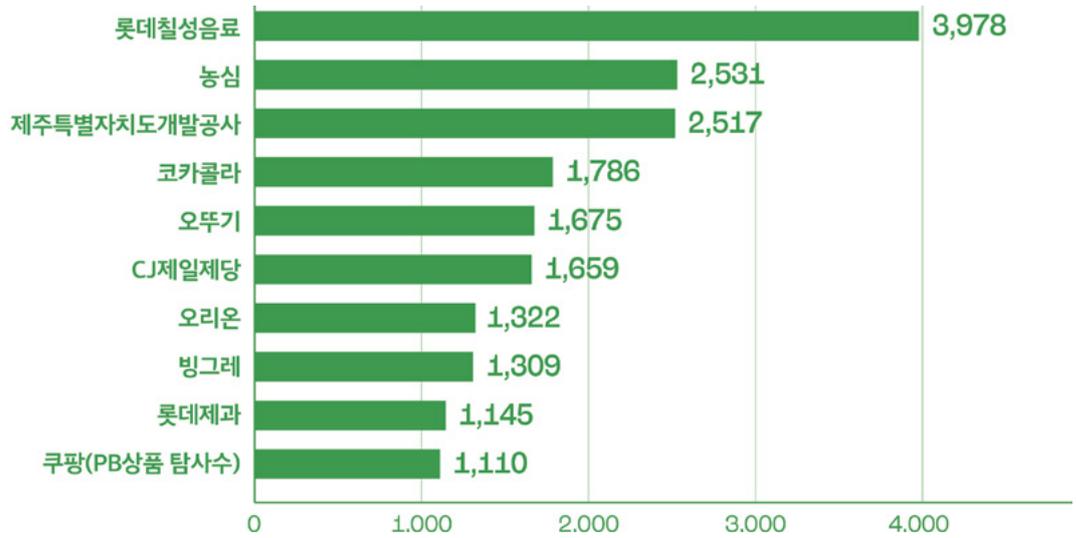


표 1
2020-2023년
플라스틱 배출
상위 10개 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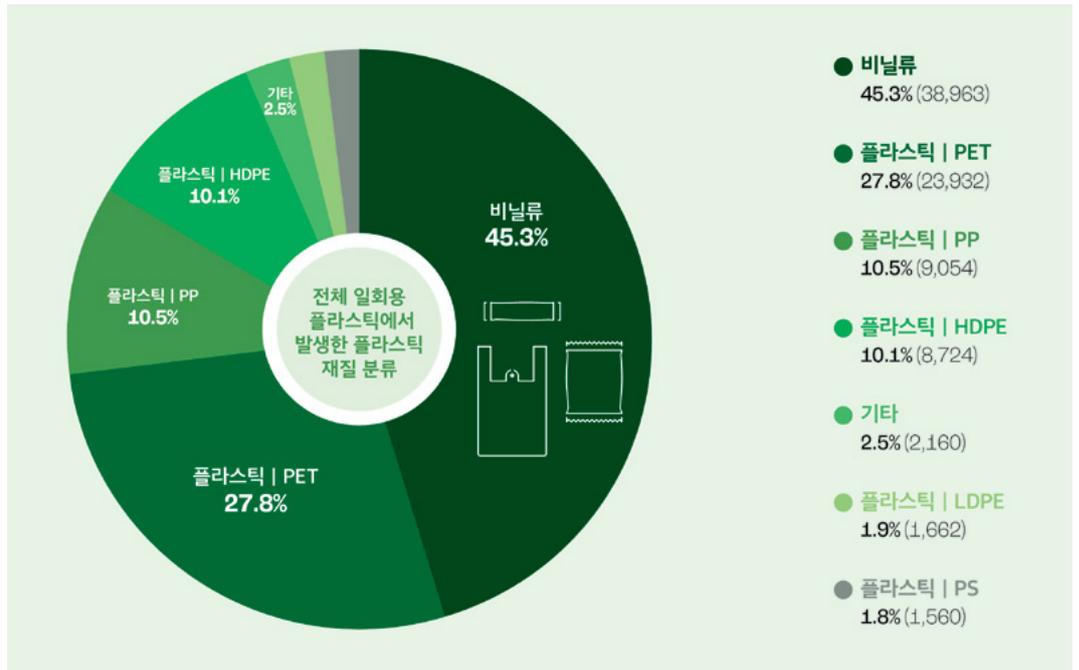
순위	2020	2021	2022	2023
1	동원 F&B	롯데칠성음료	롯데칠성음료	롯데칠성음료
2	농심	CJ 제일제당	농심	농심
3	롯데칠성음료	농심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
4	CJ 제일제당	롯데제과	동원 F&B	코카콜라*
5	오뚜기	코카콜라	롯데제과	오뚜기
6	롯데제과	풀무원	CJ 제일제당	CJ 제일제당
7	풀무원	오뚜기	오뚜기	오리온
8	동서식품	동원F&B	코카콜라	빙그레
9	오리온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	빙그레	롯데제과
10	남양유업	매일유업	매일유업	쿠팡*

*코카콜라의 경우 홈페이지 내 설명에 기반하여 코카콜라 음료와 한국코카콜라를 합쳐 집계했다.

*쿠팡은 2023년 조사에서 새로 추가된 기업이라 이전 조사(2020-2022)의 순위에는 포함되지 않았으며, 쿠팡은 쿠팡PB상품 탐사수로 순위에 올랐다.

전체 일회용 플라스틱에서 발생한 플라스틱의 재질 분류

그림6
전체 일회용 플라스틱에서
발생한 플라스틱
재질 분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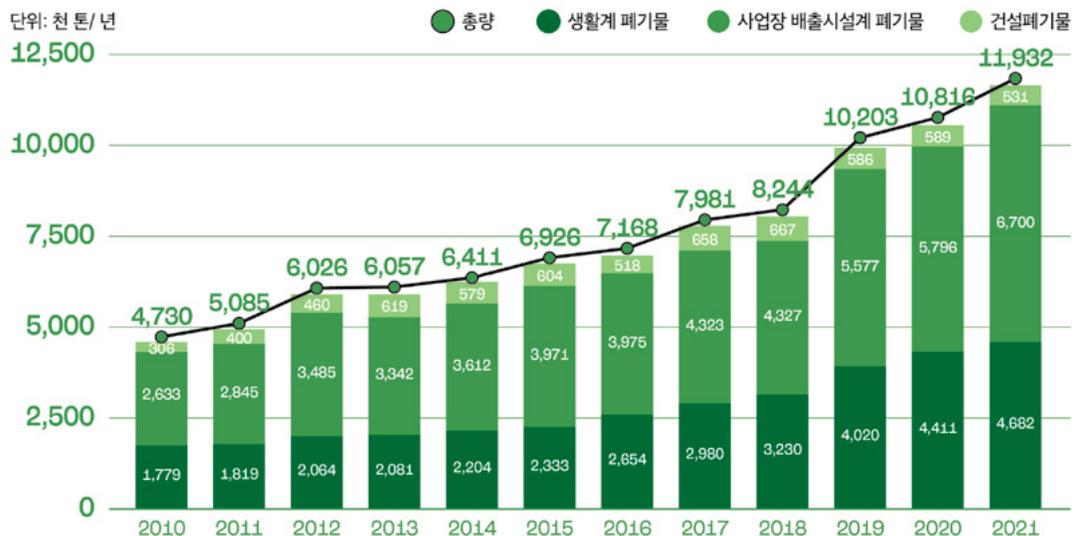


전체 일회용 플라스틱에서 발생한 플라스틱 재질은 그림6과 같다. 본 결과에서 주목할 점은 재활용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단일 재질 및 구조 플라스틱의¹²⁾ 비율은 52.2% (PET(27.8%), PP(10.5%), PS(1.8%), HDPE(10.1%), LDPE(1.9%)의 합계)라는 것이다. 이는 절반가량에 불과해, 단일 재질의 플라스틱이 전부 재활용이 된다고 해도 나머지 절반 가까이 되는 플라스틱은 재활용되기 어렵다. 하지만 실제로는 이 절반도 재활용되지 않고 있다. 그린피스와 충남대학교 장용철 교수팀에서 연구 조사한 물질 재활용률은 2021년 기준 전체 플라스틱의 약 27%이며, 일회용 플라스틱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생활계 폐기물의 물질 재활용률은 여전히 낮은 약 16.4%였다.¹⁾ 2017년 기준 자료에서 생활계 폐기물의 물질 재활용률이 13%¹⁾였던 것에 비해 4년 사이 재활용률은 약 3%p 증가했지만, 생활계 폐기물 발생량은 2017년 298만 톤에서 2021년 468만 톤으로 약 57% 증가했다(그림7). 이는 정부와 기업에서 지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재활용이 플라스틱 오염의 문제를 여전히 해결해 주고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

*정부에서 발표하는 재활용률은 물질 재활용이 아닌 소각의 일종인 에너지회수를 포함하고 있다. 다른 국가에서 발표하는 재활용률은 물질 재활용률이지만 현재 우리 정부에는 플라스틱이 플라스틱으로 다시 재활용이 되는 물질 재활용률을 발표하고 있지 않다.

그림7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량
(2010-2021)

출처 | 그린피스 플라스틱
대한민국 2.0 - 코로나19 시대,
플라스틱 소비의 늪에 빠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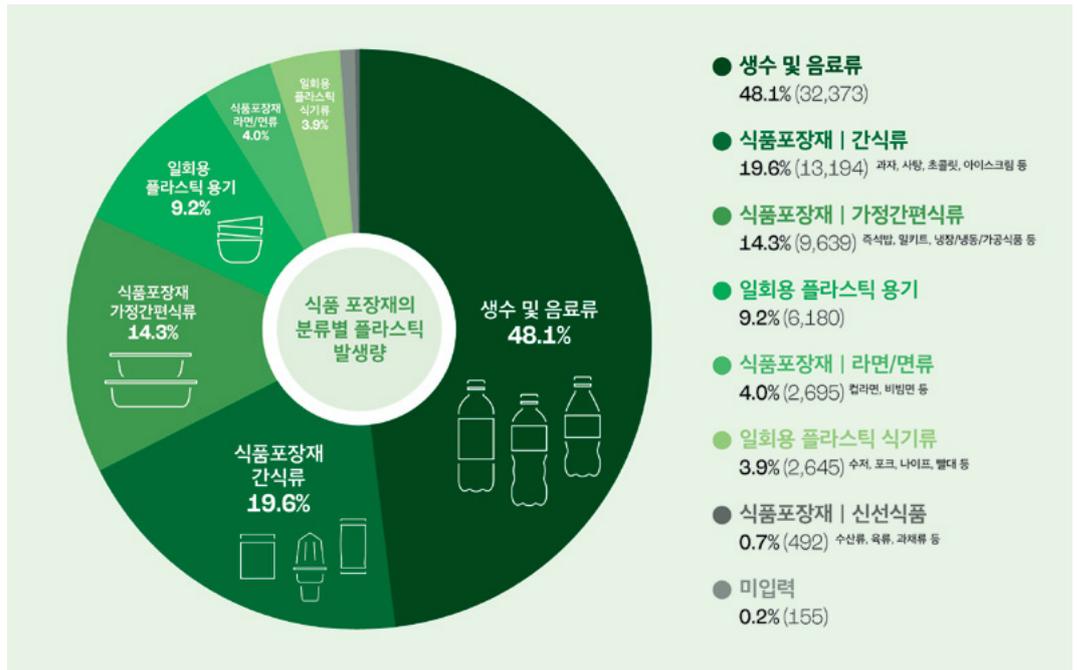


02

식품 포장재에서 일회용 플라스틱 발생 분석

그림8
식품 포장재의 분류별
플라스틱 발생량

식품 포장재에서 일회용 플라스틱의 제품군별 발생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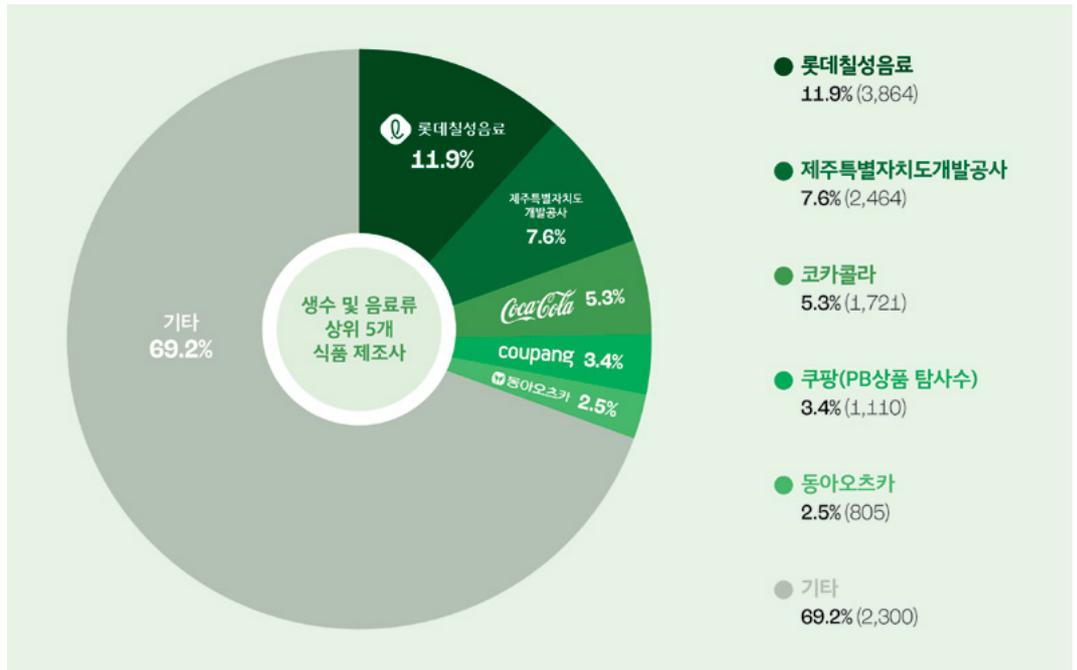


앞서 전체 일회용 플라스틱에서의 식품 포장재 비율과 가장 책임이 높은 10대 기업을 살펴보았다. 전체 발생한 일회용 플라스틱의 78%를 넘게 차지한 식품 포장재를 세부적으로 분류해보면, ‘생수 및 음료류’가 식품 포장재의 48.1%(3만 2,373개)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서 ‘과자 · 간식류’ 19.6%(1만3,194개)와 ‘가정간편식류’ 14.3%(9,639개)가 그 뒤를 이었다(그림8).

이 결과를 통해 국내 주요 식음료 제조사들이 엄청난 양의 일회용 플라스틱을 판매 및 유통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생수 및 음료류는 이 중에서도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식품 포장재 중 생수 및 음료류 상위 5개 제조사 분석

그림9
생수 및 음료류 상위 5개
식품 제조사



생수 및 음료류는 전체 일회용 플라스틱의 37.6%, 식품 포장재의 48.1%를 차지했다(그림9). 생수 및 음료류의 상위 기업들을 살펴보면, 칠성사이다, 펄시, 아이시스 8.0 등을 생산하는 롯데칠성음료가 3,864개(11.9%)로 1위를 차지했고 삼다수를 생산하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2위), 코카콜라(3위), 쿠팡 PB상품 탐사수(4위) 그리고 동아오츠카(5위)가 그 뒤를 이었다. 상위 5개 기업에서 배출한 생수 및 음료류 플라스틱 쓰레기는 전체 생수 및 음료류 플라스틱 쓰레기 3만 2,373개 가운데 9,964개로 30.8%를 차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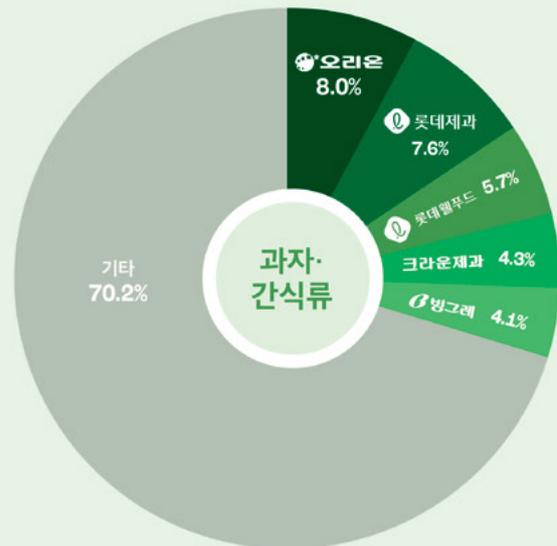
이들 음료기업은 플라스틱 오염의 궁극적인 해결책이 아닌 잘못된 방식에 집중하고 있다. 특히 경량화와 무라벨을 통해 엄청난 양의 플라스틱을 절감하고 있는 것처럼 홍보하고 있지만, 실상은 절감한 양보다 매년 더 많은 양의 플라스틱을 사용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⁶⁷ 기업은 이런 지적에 대해 경량화나 디자인 변경을 통해 절감량을 강조해 눈속임하면서 실제 매년 플라스틱 사용량은 증가했거나 밝히지 않고 있다.

특히 플라스틱 문제의 근본해결책인 재사용 시스템 도입 및 확대를 위한 글로벌 기업의 시도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⁴¹⁵ 국내 기업은 그에 발맞춘 미래지향적이고 지속 가능한 해결책을 도입하려는 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그림10
식품 포장 종류별
상위 5개
플라스틱 배출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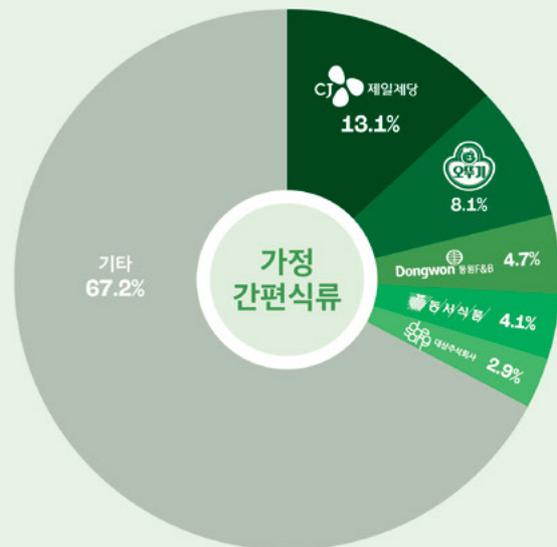
과자·간식류
상위 5개 식품제조사

1위	오리온	8.0%
2위	롯데제과	7.6%
3위	롯데웰푸드	5.7%
4위	크라온제과	4.3%
5위	빙그레	4.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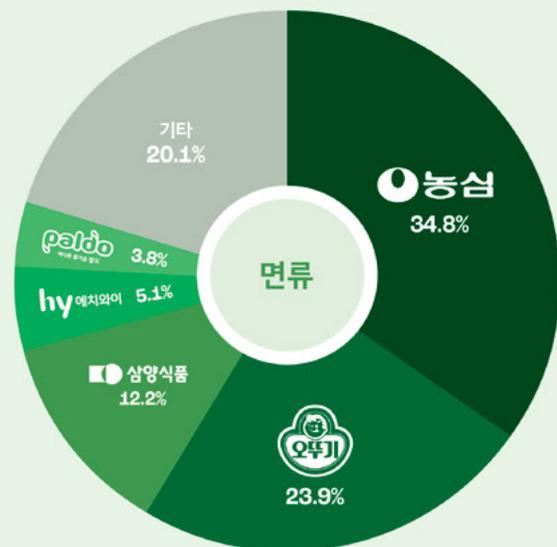
가정간편식류
상위 5개 식품제조사

1위	CJ제일제당	13.1%
2위	오뚜기	8.1%
3위	동원에프앤비	4.7%
4위	동서식품	4.1%
5위	대상	2.9%



면류
상위 5개 식품제조사

1위	농심	34.8%
2위	오뚜기	23.9%
3위	삼양식품	12.2%
4위	에치와이	5.1%
5위	팔도	3.8%



식품 포장재 중 생수 및 음료류 상위 5개 제조사의 플라스틱 사용 실태 및 감축 계획

앞서 생수 및 음료류에서 상위 5개의 제조사(롯데칠성음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코카콜라, 쿠팡(PB상품 탐사수), 동아오츠카)가 전체 플라스틱과 식품 포장재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통해 플라스틱 오염에 있어 이들 기업이 막대한 책임이 있음을 확인했다. 표2는 생수 및 음료 제조사의 지속 가능 경영보고서(ESG)와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의 경영실적 보고서에서 공개한 일회용 플라스틱 내용을 분석해 정리했으며, 각 기업과 별도로 확인했다. **탈 플라스틱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필수 조건인 기후 위기 대응, 플라스틱 감축 선언 및 계획, 투명한 정보공개를 중심으로 기업 정책을 비교 분석하였다.**

기후 위기 대응

기업은 플라스틱 생산 및 사용에서 비롯되는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 감축 목표를 명확하게 수립하고 이에 따른 구체적인 타임라인 및 재생 에너지 확대와 같은 실질적 감축 방안을 설정해야 한다. 플라스틱은 99% 이상 화석연료로 만들어지며 전체 수명주기에서 온실가스를 배출하기 때문에 플라스틱 문제의 해결은 탄소중립 실천과 불가분의 관계다. 하지만 '생수 및 음료류'의 주요 5개 제조사 중 탄소중립을 위해 실질적인 목표를 세우고 그 내용을 공개한 제조사는 5곳 중 2곳에 불과했다. 각 기업의 2022년 공식 자료에 따르면 롯데칠성음료는 2040년, 글로벌코카콜라는 2050년 탄소중립을 목표로 수립했다. 이외 3개 제조사(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쿠팡, 동아오츠카)에 대해서는 탄소 감축에 대한 구체적인 목표를 찾을 수 없었다.

플라스틱 감축 선언 및 계획

5개 제조사에 대해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량 감축을 위한 선언과 이를 시행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계획 유무를 확인했다. 대부분 기업은 패키지 경량화, 디자인 개선 등을 통해 플라스틱 감축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재사용 목표 부재, 재생 원료 확대 등 실질적으로 플라스틱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하는 방식이 대부분이다. 실질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일회용 플라스틱 생산의 획기적인 감축 선언, 목표설정과 재사용과 리필 시스템 도입 등의 변화가 필요하다. 글로벌코카콜라는 리필 및 재사용 확대를 기반으로 한 목표인 '2025년 25% 이상을 재사용 가능한 용기에 판매' 목표를 설정했지만, 이 역시 플라스틱 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충분하고 강력한 목표 설정은 아니다. 그 외의 기업들은 플라스틱 감축에 대한 구체적이고 궁극적 해결책 기반의 목표 설정이 거의 부재했다.

투명한 정보 공개

각 기업이 얼마나 많은 플라스틱을 사용하고 있는지를 공개하는 것은 기업이 플라스틱 감축을 선언하고 이를 이행하는 데 필수적이다. 그린피스는 2021년부터 식품 제조사를 대상으로 플라스틱 종합 정보와 연도별 플라스틱 감축 목표 및 달성 로드맵 공개를 요구하는 캠페인을 펼쳐왔다. 하지만 여전히 기업들은 해당 정보를 공개하는 데 매우 소극적이었다. 온실가스 배출량, 재생 에너지 사용 비율, 플라스틱 포장재 사용량을 모두 공개하고 있는 기업은 '생수 및 음료류' 5개 제조사 중 2곳(롯데칠성음료, 글로벌코카콜라)뿐이었다.

표2
주요 기업의 플라스틱
실태 및 감축 계획 비교

구분	롯데칠성음료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	The Coca-Cola Company (글로벌코카콜라*)	쿠광	동아오츠카	
기후위기대응	탄소 감축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30년 : Scope 1+2 50%, Scope 3 30% 감축* 2040년 : Scope 1+2 탄소중립 	정보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30년 : Scope 1,2,3 25% 감축(2015년 기준) ~2050년 : 탄소중립 	정보없음	정보없음
	재생 에너지 목표	~2040 : 100%	2030까지 신재생에너지 50%전환	정보없음	정보없음	정보없음
플라스틱 감축 선언 및 계획	플라스틱 감축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25년 : 플라스틱 감축 로드맵 수립 및 경량화 추진 ~2030년 : 재생원료 사용 플라스틱 제품 확대 ~2050년 : 탈플라스틱 목표 달성 	플라스틱 사용량 2030년까지 50% 감축 (2020년 대비)	비-재생 에너지 (non-renewable energy)로 생산한 석유 기반 플라스틱 사용량 2020~2025년 누적 300만 톤 감축	정보없음	정보없음
	재사용	정보없음	정보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30년 : 전 세계에서 판매 되는 음료25% 이상을 리필/반환 가능한 유리 또는 플라스틱 병이나 재사용 패키지의 음료수 디스펜서에 판매 	일부 배송에서 재사용 가방으로 배송	정보없음
	재활용 및 기타	페트병 경량화, 재생 원료 확대, 재활용 용이성 개선 등	재활용 증대 및 재생원료 활용 페트병 경량화 에너지 사용량 절감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25년 : 모든 포장재를 재활용 가능하도록 생산 ~2030년 : 포장재의 50%의 재생원료로 생산 	일부 비닐 포장, 재회수를 통한 재활용 추진	페트병 경량화, 무라벨 제품 및 바이오페트 개발 확대, 재활용 용이성 개선, 에너지 사용량 절감 등
투명한 정보 공개	온실가스 배출량	2022 : 159,319tCO ₂ eq (Scope 1+2)	2022 : 33,905 tCO ₂ eq	2022 : 5,560,000tCO ₂ eq	정보없음	2022 : 18,696tCO ₂ eq (Scope 1+2) 624tCO ₂ eq (Scope 3)
	재생에너지 사용비율	2022년 기준 0.3%	정보없음	2022년 기준 21%	정보없음	정보없음
	포장재 사용량	2022 : 55,457톤	정보없음	2022 : ~1340억개	정보없음	정보없음
평가	롯데칠성음료	재활용, 경량화, 재생 원료를 기반으로 한 플라스틱 감축 계획은 있으나 재사용 계획 없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재활용, 경량화, 재생 원료를 기반으로 한 플라스틱 감축 계획은 있으나 재사용 계획 없음				
	The Coca-Cola Company (글로벌코카콜라*)	글로벌 코카콜라의 목표와 정보는 사용량 공개, 플라스틱 감축 목표, 재사용 목표 등이 포함되어 있어 가장 선진적이나, 재사용 목표의 강화가 필요. 국내 코카콜라를 생산 및 판매 하는 기업들은 글로벌 코카콜라의 정책에 전반적으로 따르지만, 국내에서의 플라스틱 사용량, 플라스틱 감축 목표 등은 없음				
	쿠광	당사의 배송 방식에서 비닐 포장재의 경량화와 일부 배송의 재사용 배달 가방을 통한 감축 계획은 있으나, 탐사수와 같은 PB상품에 대한 감축 계획은 없음. 플라스틱 사용량 공개와 감축 목표의 부재				
	동아오츠카	동아오츠카와 확인 시, 24년부터 추가 ESG 정책이 있을 것으로 보이나, 현재까지 공개된 보고서에는 플라스틱 사용량 공개 부재 및 플라스틱 감축 목표와 재사용 관련 목표 부재				

*Scope 1(직접배출), Scope 2 (간접배출), Scope 3(기타간접배출)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는 공사 특성 상, ESG정책이 보고서가 아닌 경영실적 보고서를 참고했다.

*본 표에는 글로벌코카콜라의 지속가능 경영 보고서만을 참고했으며, 한국 판매 기업(한국코카콜라, 코카콜라음료)만의 자료는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

Part 3

결론 및 제언

2022년 11월부터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 국가들은 플라스틱 오염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함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제 플라스틱 협약을 논의하고 있다. 국제 플라스틱 협약은 플라스틱의 생산부터 버려지기까지 전 생애주기에 걸친 국제적 규칙이다. 이렇듯 국제적 규칙을 만들자는 논의가 시작될 만큼 현재의 플라스틱 오염은 심각한 위기다. **지금과 같은 위기 상황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플라스틱의 생산단계에서의 절감과 일회용 플라스틱의 단계적 퇴출이다.**

하지만 국제 플라스틱 협약에서 5차 회의(INC5) 주최국이자, 강력한 협약의 체결을 위한 국가 간의 연대체인 우호국 연합(High Ambition Coalition)의 소속 국가이기도 한 한국 정부는 이 위기 상황을 더 적극적으로 해결하기는 커녕 정반대 방향의 정책을 펼치고 있다. 환경부의 지난 10월 ‘국제 플라스틱 협약 대응 발표’에서도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신재 플라스틱 절감에 대한 소극적 태도와 국내 석유 화학 기업을 보호하고자 하는 태도를 보이는 등, 국제 플라스틱 협약의 과정에서도 궁극적 해결책이 아닌 잘못된 방식만을 주장하고 있다. 또한 국내 일회용 플라스틱 및 일회용품 규제에서도 11월에는 비닐봉투와 빨대 사용 규제에 무한 계도기간을 주고, 종이컵의 규제를 포기하는 등 플라스틱 문제 해결을 위한 전 세계적 흐름과 시민의 요구에 역행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¹⁶ 반면 독일, 프랑스 등 국가에서는 다회용기 제도화를 추진 중이며,¹⁷ 대만도 다회용기를 독려하고 규제화하는 움직임이 활발하다.¹⁸

정부의 플라스틱 문제 해결에 대한 의지와 규제가 강력하지 않기 때문에, 기업 또한 잘못된 방식에 집중하며 궁극적인 해결책을 위한 노력에 소홀하다. 본 조사 결과와 같이 국내 기업들의 플라스틱 포장재 사용량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고, 일회용 플라스틱의 대부분은 식음료에서 배출되고 있다. 음료기업이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음료 기업에서의 변화는 이 오염에서 벗어나기 위해 필수적이지만, 재사용과 리필시스템 도입이라는 바람직한 해결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활용이라는 잘못된 해결책 뒤에 숨어있다. 최근 들어 코카콜라¹⁴와 네슬레¹⁵ 같은 글로벌 기업에서 재사용병 등을 활용한 재사용 포장재를 확대하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지 않으며, 국내 기업의 경우 재사용 시스템을 기획하거나 채택한 기업은 전무한 실정이다.¹⁹



© Nestlé



© The Coca-Cola Company

이번 플록조사와 병행한 참가자 설문 조사에서 응답자의 59.1%는 ‘기업의 생산 단계에서부터 재사용 포장재 시스템 변화’해야한다고 답하였으며, 정부 및 기업에 무엇을 요구해야 하는지 물어보는 질문(중복응답 허용)에 응답자의 82.8%가 ‘이중 및 과대 포장된 포장재 줄이기’라고 응답했다. 이처럼 시민은 플라스틱 오염 문제의 해결이 정부와 기업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는 것을 이미 인지하고 있지만 정부와 기업은 미동조차 하고 있지 않다.

그린피스 서울사무소는 이번 플록 조사를 통해 다음을 정부와 기업에 요구한다.

첫째, 기업은 일회용 플라스틱 배출에 대한 책임을 다하기 위해 일회용 플라스틱의 실제 사용량부터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그린피스 서울사무소에서 지속해서 투명한 자료를 요구하고 있으나, 대부분 기업은 지금까지 정기적이고 구체적인 사용량은 공개하지 않고 있다.

둘째, 기업은 근본 해결책이 될 수 없는 제품 경량화나 바이오 플라스틱을 대책이 아닌, 재사용과 리필을 기반으로 하는 선순환 시스템을 도입 및 확대해야 한다. 2030년까지 재사용 목표를 50%로 설정하고 플라스틱 사용 및 제품 생산을 큰 폭으로 감축할 수 있도록 중장기 계획을 세워야 한다.

셋째, 정부는 플라스틱 생플라스틱 생산 절감의 구체적 목표(2040년까지 75% 절감)와 재사용 기반 솔루션을 포함하는 강력한 국제플라스틱 협약에 동의 및 지지를 표명해야 한다. 또한 정부는 2030년까지 재사용 목표를 50%로 설정 및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의 단계적 퇴출을 위한 정책을 도입해야 한다.

부록

- 01 참가자 인터뷰
- 02 참가자 리스트
- 03 플록조사 참가자 모집 협력 기관
- 04 후원자 리스트
- 05 참고자료

부록 01 참가자 인터뷰

그린피스는 플록조사를 수행한 시민 참가자 가운데 일부를 대상으로 후속 심층 인터뷰를 진행했다. 인터뷰에 응한 시민 모두 플라스틱 소비를 피하려 해도 선택지가 없는 현재의 시스템을 지적했다. 또 불필요한 플라스틱을 줄이기 위해 기업이 나서 줄 것을 요구했다.

박은혜 참가자



“이미 플라스틱이 잔뜩 사용된 제품들 중 한 가지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소비 환경이 문제라고 느꼈습니다. 정부는 플라스틱의 재활용이나 폐기 방법에 중점을 둘 것이 아니라 플라스틱 생산 자체에 포커스를 두어 생산 업체에게 플라스틱 생산 자체의 부담을 주는 강경한 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업체는 생분해 플라스틱이나 바이오 플라스틱 같은 허울 좋은 단어를 사용하는 마케팅을 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강윤지 참가자

“식품 신선을 유지하는 포장재들이 작년에 비해 늘어났습니다. 작년과 비교했을 때 플라스틱 사용량은 비슷하지만, 플라스틱과 비닐이 결합된 포장재가 늘어난 것이 눈에 띕니다. 우리 일상속에 많은 플라스틱이 있다고 생각만 했었는데, 직접 조사에 참여해보니 정말 많은 플라스틱 제품들이 매일 생산되고 사용되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친환경을 위해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했었는데, 가장 가까운 먹거리부터 정말 많은 플라스틱을 사용하고 있었다는 사실에 놀라웠습니다.”



이기정 참가자



“평소 플라스틱 용기가 담긴 제품을 구매하지 않으려고 노력하지만 어머니가 드실 간식을 준비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일회용기에 담긴 음료와 음식을 구매하게 됩니다. 정부 차원에서는 플라스틱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기업이 새로운 플라스틱을 사용하는 것을 제한하면서 기존 플라스틱을 재사용하거나 플라스틱 사용을 줄일 경우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를 만드는 것이 기업의 변화를 촉진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은호 참가자

“제가 아무리 플라스틱 쓰레기를 줄이려고 노력한다고 해도 플라스틱의 생산량 자체를 줄이지 않으면 크게 의미가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재활용 비율이 매우 낮기 때문에 재활용을 한다고 해서 큰 변화가 없을 것이고, 생분해 대체재 혹은 바이오 플라스틱도 특정 환경에서만 분해되기 때문에 플라스틱 쓰레기를 줄이는 데에 좋은 해결책이 되지는 않습니다. 제품을 생산할 때에 플라스틱을 최대한 사용하지 않도록 하고, 플라스틱의 사용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재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부록 02 참가자 리스트*

강지윤	공보경	권이랑	김나라	김미경	김서인	김시아	김예찬	김인선	김준식	김초룡	김현주	남혜진	문성현	
강남희	강지은	공윤지	권이령	김나래	김미래	김서진	김시은	김옥희	김인섭	김준표	김소빈	김현지	남효림	문소영
강미정	강지혜	공주	권지영	김나연	김미린	김선미	김시우	김우빈	김인영	김지나	김태겸	김현진	노민규	문수인
강민영	강진선	곽미현	권지혜	김나영	김미선	김선빈	김시은	김우정	김자연	김지민	김태경	김현희	노보미	문연균
강민우	강진원	곽민주	권진석	김나윤	김미성	김선옥	김시준	김우진	김재경	김지수	김태균	김형우	노수아	문예빈
강민재	강채민	곽시환	권태균	김나현	김민교	김선황	김신영	김우형	김재균	김지연	김태연	김혜린	노유진	문예진
강민준	강태경	곽종원	권혁남	김나희	김민구	김성령	김아영	김원순	김재민	김지영	김태엽	김혜민	노윤하	문우영
강민지	강태민	구민승	권현숙	김남영	김민기	김성민	김아인	김유나	김재연	김지우	김태영	김혜원	노은채	문인기
강민찬	강현우	구민찬	권혜원	김남준	김민서	김성애	김아현	김유미	김재원	김지원	김태우	김혜정	노재영	문재용
강민희	강현정	구소형	권혜진	김남희	김민선	김성우	김애린	김유주	김재현	김지유	김태윤	김혜주	노희선	문지민
강보배	강현지	구승연	기경희	김다빈	김민성	김성원	김양숙	김유진	김재현	김지윤	김태은	김혜진	문지수	
강비단	강형석	구원경	기지영	김다원	김민솔	김성은	김어진	김윤	김재형	김지율	김태일	김호현	라은영	문지영
강서연	강혜정	구정수	김가경	김다은	김민아	김성주	김연경	김윤도	김재희	김지은	김태준	김호리	류경민	문채은
강서영	강희영	구준혁	김가연	김다인	김민재	김성진	김연선	김윤서	김정	김지인	김태현	김호은	류경인	문혁
강성은	강희은	구지연	김가원	김다혜	김민정	김세윤	김연우	김윤솔	김정민	김지혜	김태희	김호정	류민준	문현진
강성주	경가람	구지율	김가는	김다희	김민주	김세진	김연주	김윤수	김정완	김지후	김하경	김호주	류보라	문혜린
강세연	고동현	구창우	김건우	김대권	김민준	김세훈	김연화	김윤아	김정우	김진규	김하나	김호진	류성민	문혜진
강소라	고명주	국제희	김건태	김대규	김민지	김소연	김영미	김윤재	김정원	김진만	김하린	김희성	류세진	문혜찬
강수민	고보은	국태영	김건혜	김대성	김민찬	김소영	김영식	김윤지	김정윤	김진명	김하빈	김희아	류수민	문호상
강수지	고서연	권경미	김경희	김도아	김별	김소진	김영완	김윤하	김정이	김진석	김하연	김희연	류승은	문희원
강신록	고수림	권나경	김경민	김도연	김병구	김소현	김영은	김윤후	김정현	김지아	김하윤	김희영	류재희	민동준
강영란	고아라	권나연	김경연	김도영	김보경	김승연	김영철	김윤	김정혜	김진은	김하율	김희윤	류정민	민숙희
강예린	고연진	권대윤	김경연	김도형	김보라	김승현	김영현	김윤건	김정화	김진우	김하은	류지수	민시은	
강예지	고영민	권민주	김경원	김동률	김보람	김수겸	김영화	김은경	김정희	김진일	김하진	나경혜	류지윤	민은미
강원배	고원준	권범석	김경주	김동명	김보민	김수경	김영희	김은비	김종미	김진주	김한별	나수정	류한솔	민재훈
강윤결	고유진	권보경	김경준	김동식	김보연	김수려	김예랑	김은빈	김종민	김진태	김한웅	나유식	류현철	민진주
강윤식	고은성	권서린	김경호	김동욱	김보영	김수미	김예령	김은수	김종우	김찬영	김한주	나인채	민현경	
강윤지	고주호	권서연	김경희	김동호	김사라	김수민	김예은	김은숙	김종현	김찬우	김한준	나희주	마영주	민
강은정	고지혜	권세희	김관식	김라희	김산	김수빈	김예린	김은영	김종찬	김창훈	김행연	남경훈	마영정	박가영
강의주	고창인	권승혁	김관우	김려빈	김상휘	김수아	김예림	김은옥	김주안	김창희	김향숙	남궁나현	마정민	박가현
강정은	고태인	권영재	김관준	김려원	김상희	김수연	김예빈	김은지	김주연	김재령	김현건	남궁정도	마하림	박건
강주성	고현민	권영지	김규량	김린아	김서연	김수정	김예성	김은진	김주영	김재연	김현미	남기백	마하영	박건우
강주아	고혜연	권영화	김규리	김명경	김서영	김수진	김예원	김은찬	김주호	김재원	김현서	남도율	마혜정	박교은
강주는	고화숙	권오후	김규림	김명수	김서우	김수현	김예은	김은채	김주희	김재율	김현석	남도현	명현진	박국찬
강지수	고효서	권용재	김기민	김명정	김서운	김승아	김예일	김은혁	김준	김재현	김현수	남서영	목정윤	박규빈
강지영	고효정	권윤우	김기은	김명훈	김서울	김승연	김예지	김이수	김준성	김재희	김현아	남원조	문경미	박나리
강지운	공명진	권윤지	김기환	김문순	김서은	김시내	김예진	김인경	김준수	김청화	김현우	남지영	문서현	박나림

*참가자 중 보고서 이름 게재에 동의한 1,908명

박노을	박소윤	박은경	박지은	배기연	복아인	석동열	송선미	신영란	안민영	양지민	오시아	원예은	윤만실	이가희
박누리	박소이	박은미	박지현	배강현	복혜림	석지성	송성민	신영조	안병은	양지수	오영람	원채현	윤미경	이강
박다솔	박소진	박은서	박지호	배건우	복	선시환	송수연	신예린	안선주	양진호	오영옥	원하영	윤병수	이강로
박다유	박소현	박은정	박지환	배경선	서경완	선정민	송수영	신유나	안소울	양진희	오유라	원혜숙	윤보미	이건우
박도현	박솔비	박은혜	박진경	배노을	서경진	선정숙	송승연	신유림	안수인	양채연	오우리	위다현	윤보혜	이경선
박동현	박수민	박이경	박진미	배미란	서동연	선현정	송실아	신윤희	안수진	양채원	오유주	유나래	윤빛나라	이경현
박미란	박수아	박인국	박찬민	배민선	서동욱	설미선	송연우	신은민	안수호	양현아	오유진	유다연	윤서영	이경화
박미정	박수연	박자희	박찬비	배민정	서민영	성다혜	송영주	신은진	안시현	양혜인	오윤	유다정	윤서현	이관희
박미진	박수영	박재경	박채림	배선아	서민정	성민석	송예림	신이수	안영은	양홍준	오은서	유다하	윤서희	이귀애
박미향	박수정	박재민	박채연	배성아	서민준	성민주	송예진	신재화	안영주	양홍준	오은환	유동건	윤선영	이규리
박미혜	박속진	박재우	박채원	배소영	서민호	성수민	송몽미	신정희	안원정	어주원	오정민	유동준	윤성복	이규빈
박미현	박승우	박재현	박채진	배솔아	서범석	성예림	송우연	신준용	안은별	어준혁	오정안	유보영	윤소연	이규혁
박민경	박승호	박정란	박천수	배영한	서보국	성예하	송유근	신지우	안주미	엄승현	오주연	유서원	윤소원	이규환
박민기	박시연	박정숙	박태경	배유진	서보민	성은주	송유찬	신지율	안주원	엄재용	오주영	유선욱	윤수연	이금주
박민서	박시연	박정애	박태현	배유찬	서성협	성은지	송윤슬	신지현	안주형	엄정훈	오준명	유소희	윤수진	이금휘
박민선	박시우	박정연	박하람	배은울	서승민	성은혜	송윤희	신지혜	안준영	엄주희	오지은	유수린	윤수현	이기정
박민혁	박시은	박정하	박하람	배장완	서승원	성정현	송은우	신진주	안지연	엄태이	오지혜	유수빈	윤승익	이기희
박병민	박시후	박정현	박하빈	배정민	서아루	성혜영	송이나	신재은	안지혜	여도경	오진희	유수진	윤승훈	이걸은
박사강	박신영	박정효	박하연	배지희	서연재	성효진	송재린	신해리	안진숙	여수영	오채원	유시은	윤시영	이나경
박상연	박애리	박정훈	박하영	배진영	서연주	소가은	송재민	신현도	안진홍	염강빈	오채은	유아영	윤여찬	이나연
박상윤	박여진	박정희	박하은	배효선	서영준	소소정	송정민	신현옥	안찬미	염예진	오태원	유연선	윤영심	이나영
박상화	박연정	박종섭	박한솔	백석주	서예진	소은희	송정원	신혜라	안태영	염지호	오하라	유윤성	윤영준	이남숙
박새안	박연지	박종연	박한재	백세연	서우경	소지인	송주환	신혜선	안하준	오다혜	오현명	유이성	윤예원	이다감
박서령	박영미	박종윤	박혜레나	백소연	서유진	손번호	송지연	신혜연	안해인	오단유	오현주	유인지	윤예진	이다은
박서연	박영환	박주미	박현서	백승환	서윤지	손사랑	송진	신혜원	안효진	오민서	오화민	유재민	윤인혜	이다정
박서현	박영후	박주영	박현선	백승희	서은영	손선아	송재민	신혜진	양가은	오민선	오희근	유재선	윤정	이다현
박선자	박영희	박주현	박현수	백이슬	서이슬	손성준	송현수	신화진	양가윤	오민웅	오희옥	유지나	윤정인	이다현
박설경	박예빈	박준수	박현아	백이안	서인순	손영규	신광주	심건우	양가을	오병석	옥수민	유지민	윤지연	이도훈
박성만	박예슬	박준혁	박혜리	백재인	서재우	손유나	신동현	심경실	양기정	오서윤	옥연주	유지원	윤지우	이동건
박성아	박예원	박중수	박혜영	백지성	서정민	손윤서	신무정	심다희	양나영	오서은	옥유진	유진	윤지현	이동준
박성진	박예은	박지민	박혜원	백지연	서정빈	손재홍	신민기	심대수	양문숙	오설화	옥지수	유창림	윤채영	이동홍
박성현	박예지	박지선	박혜은	백지영	서정현	손효성	신민주	심보라	양미란	오성희	왕서연	유재민	윤초롱	이동훈
박세민	박예진	박지수	박혜정	백진우	서정혜	송건우	신서윤	심수현	양민준	오세희	우가영	유철호	윤하람	이두리
박세영	박용민	박지아	박훈	백진호	서주성	송다연	신선혜	심은지	양복순	오소정	우민성	유태영	윤현명	이라희
박세은	박용현	박지연	박희순	백혜윤	서지예	송다훈	신소민	심지연	양성보	오슬영	우슬	유하나	윤현정	이로운
박세현	박용환	박지영	박희원	백혜진	서지울	송대용	신솔샘	심현진	양소영	오수림	우수빈	유해민	윤혜원	이로이
박세화	박유민	박지예	방민솔	변기동	서지형	송민경	신수아	○	양시원	오슬비	우유지	유현서	윤희원	이루리
박세희	박유진	박지우	방민혜	변민지	서창권	송민아	신승민	안강희	양은주	오슬미	우은민	윤다빈	이가연	이류근
박소연	박윤미	박지원	방승준	변슬기	서행수	송민하	신승현	안건우	양은혜	오슬민	원미숙	윤다연	이가영	이룰위
박소영	박윤정	박지윤	방현선	변지혜	서희영	송서연	신연호	안동균	양재원	오슬혁	원수연	윤동욱	이가현	이명은

이명주	이성희	이아현	이은성	이준서	이하은	이휘주	임채영	장하울	전재민	정시운	정희선	조재동	지현무	최사라
이명훈	이세연	이애란	이은아	이준석	이하진	이희정	임채후	장하은	전태울	정시은	정희원	조정란	지현호	최서연
이명희	이세열	이어진	이은우	이준성	이하현	이희주	임채희	장한성	전하애	정양화	조근준	조종화	진도영	최서윤
이문환	이세인	이언지	이은정	이준현	이한서	이희진	임해민	장현영	전현주	정연희	조명희	조준영	진민주	최선영
이미경	이세진	이예스터	이은주	이중근	이한석	인서연	임현서	장현주	전효림	정영희	조민경	조태연	진보연	최성
이미아	이소담	이여진	이은지	이지민	이한성	인은정	임효린	장현진	전희원	정예서	조민재	조하민	진선미	최세현
이미현	이소민	이연재	이은진	이지선	이한솔	임다영	ⓧ	장현철	전희진	정용수	조민정	조하연	진하울	최수빈
이민경	이소윤	이연화	이은찬	이지수	이한울	임다윤	장가연	장홍석	정기영	정원	조민지	조현서	ⓧ	최수영
이민승	이소현	이영림	이은하	이지영	이한이	임다은	장경연	장효정	정기환	정유경	조선주	조현영	차경미	최수지
이민재	이소희	이영서	이은혜	이지우	이해나	임다힘	장금란	장희원	정건	정유나	조수빈	조현주	차미경	최수진
이민정	이슬	이영선	이은호	이지운	이현빈	임미진	장동률	전기영	정겨운	정유진	조수아	조현희	차민영	최수환
이민주	이수	이영진	이이나	이지원	이현	임서영	장민규	전경주	정경아	정윤서	조수현	조형석	차연경	최슬기
이민하	이수륜	이예림	이인휘	이지윤	이현경	임서진	장민우	전규일	정다경	정윤성	조수훈	조형준	차예주	최승미
이보란	이수리	이예성	이자미	이지은	이현구	임성중	장민준	전명희	정다운	정윤진	조아람	조혜리	차윤지	최승연
이사라	이수미	이예슬	이재문	이지현	이현범	임세희	장민호	전민서	정도연	정윤하	조아빈	조혜영	차주하	최승현
이사바	이수민	이예원	이재인	이지혜	이현석	임수민	장보경	전민아	정미란	정윤호	조아진	조혜희	차현우	최아윤
이산	이수빈	이예정	이재준	이지호	이현정	임수연	장소예	전보미	정민건	정은실	조여빈	조희연	채순미	최예리나
이상민	이수아	이예주	이재철	이지후	이현주	임수정	장수빈	전복수	정민경	정은영	조연우	조희주	채유림	최연경
이상연	이수연	이예지	이재현	이지희	이현지	임수진	장수정	전서영	정민규	정윤하	조연정	조희진	채윤정	최연지
이서린	이수영	이예진	이재형	이진서	이현희	임승경	장승미	전서윤	정민서	정이슬	조영님	좌윤희	채은선	최연희
이서연	이수지	이은유	이재희	이진수	이혜린	임승란	장연우	전성이	정민영	정이정	조영미	주가현	채현우	최영경
이서영	이수진	이용재	이정근	이진아	이혜민	임승희	장연희	전성향	정민진	정재하	조영채	주광혁	천광주	최예나
이서윤	이수희	이용재	이정민	이진학	이혜빈	임영은	장연근	김예원	정상권	정주영	조예준	주라영	천신영	최예담
이서울	이순규	이우리	이정안	이찬식	이혜선	임영주	장예성	전수아	정상은	정지원	조예진	주병준	천정민	최예리
이서진	이순주	이우리별	이정은	이찬영	이혜영	임유진	장예원	전수연	정상호	정지현	조유리	주선영	최경아	최예준
이서하	이순행	이원찬	이정진	이창원	이혜원	임유하	장예준	전수은	정석인	정진나	조유미	주수현	최광진	최용환
이서한	이슬기	이유나	이정현	이창주	이혜은	임윤준	장원정	전수진	정선애	정충민	조유정	주시경	최광현	최유리
이서현	이슬비	이유림	이정형	이재문	이혜인	임은조	장윤서	전승민	정선자	정충은	조유진	주영란	최금옥	최유영
이서희	이승범	이유정	이정환	이재아	이혜주	임정민	장윤희	전연화	정선희	정태영	조윤지	주윤서	최도웅	최유준
이석원	이승용	이유진	이정희	이재은	이호성	임정은	장은정	전예지	정성경	정하윤	조윤호	주재환	최리나	최윤미
이석준	이승윤	이윤서	이재찬	이재현	이호연	임정희	장이현	전예후	정세영	정하은	조은샘	주정민	최명규	최윤서
이선경	이승은	이윤선	이종민	이태빈	이호은	임종봉	장정민	전유나	정세현	정해광	조은서	주중호	최명화	최윤영
이선내	이승준	이윤아	이종일	이태영	이호진	임주성	장주리	전유빈	정세희	정현	조은성	주하연	최미영	최윤정
이선미	이승현	이윤재	이주선	이태호	이화수	임주아	장주희	전윤재	정소연	정현도	조은수	주현아	최미진	최윤희
이선영	이승후	이윤정	이주아	이하늘	이화정	임지수	장준성	전은경	정소원	정현진	조은아	주현지	최민서	최은성
이선주	이시연	이윤진	이주안	이하섭	이환희	임지울	장지우	전은덕	정소희	정혜령	조은정	주혜원	최민준	최은순
이선화	이시영	이윤재	이주연	이하연	이효론	임지현	장지현	전이숙	정수경	정혜린	조은호	주효린	최민희	최은재
이선희	이시은	이은미	이주희	이하영	이효선	임지호	장철호	전주리	정수민	정혜숙	조이현	지미정	최백경	최은지
이성연	이아린	이은빈	이준	이하원	이효원	임찬	장태우	전지민	정수희	정혜연	조인영	지서희	최보경	최이현
이성화	이아인	이은서	이준경	이하울	이휘강	임채린	장태원	전지윤	정승현	정희라	조장욱	지은빈	최보미	최인서

최재우	최주원	최진호	최희정	표지윤	한민서	한용덕	한형준	허민영	허희라	홍성윤	홍진민	황서연	황지현	황태희
최재원	최준민	최하현	추경미	Ⓜ	한비인	한유림	한혜민	허민재	현성호	홍성재	홍진숙	황선정	황태경	황혜영
최재정	최준서	최현서	추병진	하민지	한선미	한은지	한혜연	허성수	현승빈	홍승안	홍채빈	황애린	황태규	
최정원	최준석	최현식	추서희	하민혜	한선옥	한재민	한희주	허세진	현승아	홍연조	홍채은	황윤경	AZIMOVA DILDORA	
최정은	최준우	최현애	추지연	하연우	한수인	한정은	함수연	허승연	현정아	홍예담	홍혜란	황윤이	RUSTAMJON KIZI	
최정인	최준하	최현진	추현영	하영균	한승연	한종명	함지효	허정후	홍가비	홍예준	황건준	황인규	Heather Hee Min Kim	
최정진	최준환	최형우	ⓓ	하은지	한시우	한지연	함혜민	허준원	홍경의	홍예현	황남영	황정연	pokhrel kamal prasad	
최정화	최지우	최혜원	간사미야	하지윤	한아름	한지영	하나영	허지명	홍다예	홍정인	황다경	황주찬	Serin Kim Hong	
최정희	최지원	최화서	Ⓣ	하지훈	한영휘	한진주	허동주	허진솔	홍명란	홍준기	황미화	황주현	VU THI NGOC	
최주아	최지현	최효정	표세인	한다정	한영희	한채연	허린	허찬	홍민아	홍지혜	황민지	황준석	YEW PEI JUAN	
최주연	최지훈	최희민	표소진	한다휘	한예은	한찬관	허미정	허태현	홍민우	홍진령	황민하	황지원		

부록 03 플록조사 참가자 모집 협력 기관



부록 04 후원자 리스트

ㄱ	권화이	김윤정	김태영	류시훈	박정진	신해연	안병우	유경희	이순후	이지혜	정병혁	지영주	호서벤처포럼회원 일동
강대봉	국승표	김의성	김태이	류재복	박종택	설경숙	안중웅	유동림	이시아	이태균	정보배	홍~홍	홍선영 황영선
강성욱	김기연	김정욱	김풍경	류지수	박지민	성백현	안주현	유은미	이아라	이효은	정성훈	최광훈	홍성아 황의진
강연현	김경남	김주연	김형진	민성식	박해우	손희정	안찬혁	유종준	이연지	이희민	정원창	최규민	황리리 황현숙
강인숙	김경아	김지민	김혜진	민윤정	박한정	송미라	안채현	윤해나그린	이윤선	임보라	정은순	최병주	황세영
강현구	김대회	김지석	김환기	박	박혜미	송현주	양민식	李 熾妍 (이화연)	이윤희	임소민	정은주	최보아	Lin Li
강혜정	김도연	김지영	김환민	박광희	박희원	송현훈	양준석	이길파	이은민	임예슬	정준섭	최영자	sangmin bok
강희경	김민성	김지호	김호정	박남희	반주희	신광영	엄수중	이다인	이은주	정진완	최은경	Singer	
권마리	김민정	김진	김희영	박미정	배승진	신지수	엄일화	이틀위	이은희	장성희	정희익	최종면	Soi Choi
권소희	김병렬	김진수	남기은	박상희	배일호	신지영	여유경	이미영	이재덕	장수원	정희정	최준호	
권수민	김연우	김진행	김~김	박수인	변경화	신지원	염희수	이상영	이재현	장승일	조경화	최해람	
권애현	김연중	김진현	노세호	박수진	변재원	신진주	오기향	이상일	이정수	장주리	조서연	최혜정	
권정행	김영준	김진호	노현진	박승민	~	신현제	오순희	이상현	이준숙	전인덕	조승미	편혜리사	
권혁남 (국립가리)	김옥수	김찬영	로하이	박영하	서아림	~	우광순	이서란	이지연	전채리	조현철	한지혜	
권혁주	김윤아	김철웅	후복스	박예지	서영숙	안영희	우주연	이세린	이지윤	전혜수	주경수	현미숙	

*2023 플록조사 보고서
후원자 199명

1. 그린피스 서울사무소. 2023. 플라스틱 대한민국 2.0 - 코로나 19 시대, 플라스틱 소비의 늪에 빠지다, Mar 2023, Available at: <https://www.greenpeace.org/korea/update/25774/report-disposable-korea-ver2/>. Accessed (20 Dec 2023)
2. OECD. 2022. Global Plastics Outlook. Policy Scenarios to 2060, 21 June 2022, Available at: https://www.oecd-ilibrary.org/environment/global-plastics-outlook_aa1edf33-en. Accessed (20 Dec 2023) June 2022
3. UNEP, 2023, Everything you need to know about plastic pollution, 25 Apr 2023, Available at: <https://www.unep.org/news-and-stories/story/everything-you-need-know-about-plastic-pollution>
4. Plastics Europe, Plastics - The Facts 2020: An Analysis of European Plastics Production, Demand and Waste Data (Plastics Europe 2021), Available at: <https://www.plasticseurope.org/en/newsroom/news/eu-plastics-production-and-demand-first-estimates-2020>
5.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 2019, 순환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플라스틱 관리전략 연구, Dec 2019, Available at: https://www.kei.re.kr/elibList.es?mid=a10101000000&elibName=researchreport&c_id=726249&act=view
6. 배소라. 2022. "ESG 앞장" 홍보하더니... 롯데칠성, 페트병 사용 3년전 보다 증가, 2022.12.26, Available at: <https://www.meconom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73546>
7. 변지철. 2023. "제주삼다수, 판매량 늘면서 탈(脫) 플라스틱 제주 선언에 역행", 13 Sep 2023, Available at: <https://www.yna.co.kr/view/AKR20230913087700056>
8. Greenpeace US, 2023, Forever Toxic: The science on health threats from plastic recycling, May 2023, Available at: <https://www.greenpeace.org/usa/reports/forever-toxic/>
9. Greenpeace East Asia, 2020, Biodegradable Plastics: Production, composition and Environmental impact, Available at: <https://www.greenpeace.org/static/planet4-eastasia-stateless/84075f56-biodegradable-plastics-report.pdf>
10. 자원순환마루. 2022. 전국 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2021년), 30 Dec 2022, Available at: https://www.recycling-info.or.kr/rrs/stat/envStatDetail.do?jsessionid=CwbyBKJt1EDHB5HTRcFizpybJEZieSjvnxDmneDXqdAD5nOGbQmwPPTpT3j5lual.RCIS-WAS_servlet_engine1?bbsId=BBSMSTR_00000000002&nttId=1306&s_nttSj=KEC006
11. Break Free From Plastic. 2022. BRANDED brand audit report 2022, Available at: <https://brandaudit.breakfreefromplastic.org/wp-content/uploads/2022/11/BRANDED-brand-audit-report-2022.pdf>
12. 환경부. 2020. (환경부) 포장재 재질 구조 평가 가이드라인 부록 배포 안내, 3 Apr 2020. Available at: https://kcia.or.kr/home/edu/edu_01.php?type=view&no=12753&ss=page%3D6%26skind%3D%26sword%3D%26ob%3D. Accessed (24 Oct 2022)
13. 환경부. 2020. (환경부) 포장재 재질 구조 평가 가이드라인 부록 배포 안내, 3 Apr 2020. Available at: https://kcia.or.kr/home/edu/edu_01.php?type=view&no=12753&ss=page%3D6%26skind%3D%26sword%3D%26ob%3D. Accessed (24 Oct 2022)
14. The Coca-Cola Company, 2022, The Coca-Cola Company Announces Industry-Leading Target for Reusable Packaging, 02 Nov 2022, Available at: <https://www.coca-colacompany.com/media-center/coca-cola-announces-industry-leading-target-for-reusable-packaging>
15. Flora Southey, Nestlé moves Nesquik into reusable steel packaging in Germany: 'We want to use less virgin plastic; this is a concrete solution' 9 Feb 2023, Available at: <https://www.foodnavigator.com/Article/2023/02/09/nestle-moves-nesquik-into-reusable-steel-packaging-in-germany-we-want-to-use-less-virgin-plastic-this-is-a-concrete-solution>
16. 환경부, 2023, 일회용품, 소상공인 부담 해소하며 국민의 자발적 참여로 감량, 7 Nov 2023, Available at: <https://me.go.kr/home/web/board/read.do?pagerOffset=0&maxPageItems=10&maxIndexPages=10&searchKey=&searchValue=&menuld=10525&orgCd=&boardId=1635310&boardMasterId=1&boardCategoryId=&decorator=>
17. BMUV. 2023. Waste Management in Germany 2023, 1 Apr 2023, Available at: https://www.bmuv.de/publikation?tx_bmubpublications_publications%5Bpublication%5D=710&cHash=309a44aa9bcaeee04c1ab621flee7a36
18. Chen Chia-yi, 2023, Disposable cup bans come into effect, 7 Nov 2023, Available at: <https://www.taipetimes.com/News/taiwan/archives/2023/11/07/2003808814>
19. 이수연, 2023, "플라스틱 대신 유리병 써달라" ...롯데농심 대답은, 15 Dec 2023, Available at: https://www.newspenguin.com/news/articleView.html?idxno=15676&fbclid=PAAabc9clitLwGkBLPICsojVK_40nL-C3oE1xbgrpElsqEwkeK3RqWdINYBkY_aem_AZu-IYA7xwnIJuEDn0hNYGaPljoHLv1iDjqDp9zZnRjMBPt0B24IA6om98xjIBoIYA

그린피스 동아시아 서울사무소

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 257 청룡빌딩 6층(우 04322)

T. +82 2 3144 1994 F. +82 2 6455 1995

www.greenpeace.org/korea

문의 press.kr@greenpeace.org
저자 정다운, 김나라, 김진솔, 최혜원
기획 김진솔
홍보 김나영, 이다경, 최현섭
후원 모집 이광표
디자인 당케스튜디오
발간 2024년 1월

GREENPEACE